

이 주간의 말씀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민수기 10 : 9

*민경업 목사 방송 설교 : AM 1190 매주 목요일 오후4시

□우리의 감사

● **십일조:** 김옥인 김일수/희식 김성수/유순덕 김줄리아나 강순희/정희 우중복/정은 박진/현숙 송황의/미서 신동국/소피아 문승용/은주 정문수/명옥 유병호/혜진 백승우/경화 임창열/내숙 박내원/소정 박민철/김경숙 신영구 명성천/경란 강태광(응원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저와 제 아내의 십일조입니다. 저의 작은 마음도 교회 회복에 힘이 되고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응원합니다.)

● **감사헌금 및 주일헌금:** 김옥인 김일수/희식 김성수/유순덕(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우중복/정은(범사 감사) 박민철/김경숙(손녀의 합격 감사) 김기자 이선채 전애덕(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10월 보냄 감사) 이명원/정균(범사 감사) 이범식/영순(범사 감사) 이민중/수남 류경진/마리아 강대찬/영옥 조종현/미셀 한홍철/송혜정 이정화 민경업/미숙 최경호/사라 임막동/정숙(*2) 오경화 손창원 신동심 배민규 류성민 양기수 이재문/김지수 전영각/경심 김완섭/항영 배준환/광자 무명 7

- **건축헌금 :** 박내원/소정 이민중/수남 송영찬/영진/영수
- **선교헌금 :** 서상연/지연 성연선/병연
- **캄보디아지정헌금 :** 이민중/수남 이경숙 류경진/마리아 강그레이스 강대찬/영옥
- **기타 :** 반석순
- **헌물 :** 친교실 정수기(김봉재)

- **별도의 헌금 시간은 없습니다. 교회당에 오셔서 직접 헌금하시거나, 교회 주소로 헌금을 보내주시고, 헌금자 명단에 빠진 분은 연락해주시오.**
- **115헌금은 \$5이며, 모기지 헌금과 함께 건축헌금에 포함됩니다.**

헌금 총계 : \$ 5,759.40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4:18).

□예배 도우미.....

		11/7	11/14	11/21	11/28
대표기도	주일	1 백승우	박내원	우중복	나중원
		2 백승우	박내원	우중복	나중원
	토	6 유순덕	13 김신희	20김줄리아나	27명경란
1부간식봉사		예원(강순희)	은혜(신동심)	희락(우중복)	예담(유순덕)
2부점심봉사		예원(강순희)	은혜(신동심)	희락(우중복)	예담(유순덕)
안내위원		이명원 이민중 임창열 임내숙 박내원 박소정			
헌금위원		민병수 이민중 박소정			

1. 미국의 교회들과 이민교회들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힘쓰며 성령에 충만한 은혜를 입게 하소서.
2. 아프가니스탄의 교회 목회자들과 지하 성도들, 특히 양수진 선교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3. 캄보디아의 김창규 파송 선교사님과 디모테성경연구원(대표 이재학 목사)과 아릴락(성경번역선교대학원 정제순 선교사)을 은혜로 지켜주소서.
4. 다니엘기도회를 통하여 강사들이 받은 은혜를 우리도 받게 하시고 아울러 우리 교회가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게 하소서.
5. 새로 세워진 당회가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여 온전히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해 양무리들의 모범이 되게 하소서.
6. 담임목사님이 성령충만하여 말씀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영적 지도력을 잘 발휘할 수 있게 하소서.

7. 요일별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환우들	일	강순희 임정숙 배광자	화	전순혜 정안젤라 오경화
수	나중원 송황의 강대찬	목	최수정 김조앤 한재연	금	김연권 최영자 서상연

<파송> 캄보디아/김창규(1가정)
 <후원> 나미비아/임선희, 러시아/길요한, 김문일, 말레이시아/이주희
 멕시코/홍요셉, 미얀마/허재영, 이 동, 방글라데시/윤피터
 브라질/이영대, 중국/강애리, 김은태, 박선민, 이조엘, 인도/김덕래
 인도네시아/김귀영, 김철용, 캄보디아/김해준, 태국/김대순
 호주/정 집, 정철화 (20가정)
 <기관> 북한/그날까지(UTD), 빛나라선교교회, 새터교회, 중국/문도신학교(GBM)
 한국/디모테성경연구원, 아릴락, 이랑학교, 합동신학대학원
 미국/밀알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자마선교회, 컴미션(12기관)

담 임	민경업 목사	시무장로	우중복 강순희 백승우
행 정	류경진목사		
교육부	신소피아 선교사	찬양팀 리더	조종현
한국학교	정영숙 사모	반 주	김신희

주일예배 : 1부 – 8시 / 2부 – 11시
토요새벽예배 : 6시 30분

- 유 치 부: 주일 오전 11시[108,109]
- 초 등 부: 주일 오전 11시[205]
- 중 고 등 부: 주일 오전 11시[108]
- 주일기도모임 : 오전 10시[206]
- 말씀묵상새벽기도회: 월 – 금 5시30분 [본당 & 라이브톡]
- 나침반한국학교 : 주일 오전 9시30분 [방학]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Tel.714-403-2193

주 일 예 배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1:00

예배초청 <i>Invocation</i>	민경업 목사/쉐키나 찬양팀
찬양과 경배 <i>Praise and Adoration</i>	불길 같은 주 성령(184, 통일 272) Come, 주께 경배드리세(기쁨 502) 나의 등 뒤에서(기쁨 80)
	사도신경
찬양	찬송하는 소리 있어(19, 통일 44)
기도 <i>Prayer</i>	백승우 집사 다같이 /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2*)”
말씀선포 <i>Worship and Proclamation</i>	<광야생활 지침서 민수기 강애(10)> “하나님의 나팔 소리” 민수기 10:1-12(구약 p.211) 민경업 목사
헌금 <i>Worship and Offering</i>	하나님의 나팔 소리(180, 통일 168)
인사와 교제 <i>Reverence</i>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찬송 <i>Worship in Song</i>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기쁨 629)

말씀묵상새벽기도회	토요새벽예배
월-금 / 오전 5시 30분	오전 6시 30분
민경업 목사 본당 / 라이브톡	민경업 목사 본당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갑니다!”

지금부터 10년 전 2011년 11월 11일(금) 저녁에 할리웃볼에서 다민족 연합기도대회가 처음으로 모였습니다. 그때 저는 미국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만 가지고 우리교우들과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날씨는 을씨년스럽고 비가 간간히 내리기도 하니 대중 집회를 노천에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2만여 명이 모여서 깊어가는 가을밤에 찌렁찌렁한 목소리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저는 그날밤을 지금도 잊지 못하겠습니다. 미국을 위해 우리 모두는 절박하게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을 허락 하셨습니다. 얼굴에 떨어지는 가랑비에든 불구하고 찬양과 기도의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던 밤이었습니다.

그 이후 다민족기도대회는 10년간을 계속 한인들이 주도하는 가운데 이어져 왔습니다. 그동안 기도회를 하기 어려운 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기도회를 꾸준히 감당할 은혜를 주셨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도 이어 올해도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기도회는 지난 달 29일 은혜한인교회에서 현장과 온라인의 생중계로 열렸습니다. 매번 그랬지만, 다수의 타민족을 포함한 여러 인종들이 한마음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미국을 위해 부르짖었다는 자체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공통점 외에는 달라도 너무 다른 여러 인종이 모여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체가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창립 23주년 기념 임직 및 은퇴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 세월 동안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침의 시기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바닥으로 곤두박질쳐서 회복이 가능할까라는 근본 질문조차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며, 또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임직자분들에게는 축하를 드립니다.

요즘 읍기를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누구도 감당하기 힘든 재앙을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 받은 좌절감 속에서도 굳굳이 견디며 하나님께 고통의 이유를 묻는 질문을 던지는 읍을 보며 고통의 상황을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지를 새삼 배우게 됩니다. 절망 속에서 그래도 읍은 간간히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자기가 나아갈 길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17:9). 의인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외길 인생을 걷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꾸준히 걷다보면 점점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읍을 통해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을 포함하여 모든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그 길을 가는 법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M]



“은 세상이 캄캄해도 대낮 같이 밝은 야외주차장!” (1일, 임직식 준비)

☐ 교회소식.....

- 1. 감사의 달 :**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가족과 교우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감사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2. 창립23주년 기념 임직예배 :** 오늘 오후 3시, 우리교회가 새롭게 출발하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교우들이 꼭 참석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 임직자 사진촬영 : 오늘 오후 2시, 본당
 - * 11월 정기 당회 : 임직 예배 후, 당회장실
- 3. 다니엘 기도회 : 매일 저녁 7시, 21일까지.** 집회에 오셔서 은혜를 사모하고 충만한 은혜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다니엘기도회를 시청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카톡에 올려드립니다.
- 4. 교역자 부임 :** 류경진 목사님이 행정담당 보조목사로 부임하셨습니다.
- 5. 남녀 선교회 및 권사회 총회 :** 14일(주일 오후 1시, 선교회 후에 권사회가 모입니다.)
- 6. 미얀마 성탄선물 보내기 :** 이 동 선교사님(미얀마)이 섬기는 카친족에게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에 생필품 패키지를 보내기 원하시면 <미얀마 지정현금>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20/Package).

“내친 김에 실내외의 등을 다 수리했습니다.” (1일, 임직식 준비)



☐ 교우동정.....

* 한국 방문 : 안경숙 선교사

토요새벽예배 및 주일온라인예배

6일 / 오전 6시 30분

7일 / 오전 8, 11시

예배초청 / 웨키나 찬양팀

찬양과 경배 /

불길 같은 주 성령(184, 통일 272)
Come, 주께 경배드리세(기쁨 502)

주기도문

찬양 / 예수는 나의 힘이요(93, 통일 93)

기도 / 유순덕 권사

성경봉독 / 욥기 19 : 21 - 29

찬양 /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말씀 / 민경엽 목사

“나의 대속자는 살아 계시니!”

찬양 / 주의 사랑 비칠 때에(293, 통일 414)

인사와 교제 / 다같이

찬양 /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기쁨 629)

=====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1.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뿔박 환난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의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후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때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2.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희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119:105)

주일(7)	월(8)	화(9)	수(10)	목(11)	금(12)	토(13)
요 7 - 8	9 - 10	11 - 12	13 - 14	15 - 16	17 - 18	19 - 21